2019 새 설계

허 석 순천시장

"시 승격 70주년…순천 방문의 해·신청사 건립 주력"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데 주력해 시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순천을 실감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은 국가적으로는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순천이 시로 승격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순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방문객 숫자가 아니라 여행의 컨셉과 가치가 다른 가성비 최고의 순천여행의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가 시 청사 건립의 실질적 원년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순천 방문의 해는 1000만이라는 방문객 숫자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순천에 와서 순천의 맛과 멋, 풍광,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환경을 살리는 생태관광,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지역기반 관광 여행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허 시장은 올 한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잘사는 순천'을 꼽았다.

시민이 함께 잘사는 순천을 위해 '경제와 일자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성공 신화를 창출하는 호남권 최대 창업 보육센터 설립이 올해 가시화된다.

이 달 중에 중국 중관촌 최고 책임자들을 순천시의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창업 플랫폼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농정혁신 적극 추진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설립
아시아 생태문화도시 만들기 박차

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을 계획이다.

또 국가정원과 인접한 연향뜰은 잡월드를 기점으로 한 4차산업혁명 체험시설,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유·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집중해 미래산업 특구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밀착 지원과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교육도시 순천'도 올해 순천시정의 역점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한 대전제는 한 명의 천재보다는 지역사회를 이끌 수 천 명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다.

허 시장은 "도시가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를 담은 교육이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마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지역 교육력 회복과 증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농사짓는 사람이 만족하는 농정혁신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지난해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인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이다. 이 사업은 건물은 남아있으나 군정이 떠나고 슬럼화되고 있는 승주읍 일대를 재생할 수 있는 기회이자 순천 차와 순천 술 등 순천의 우수한 전통 음식자원을 바탕으로 발효음식과 식품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2020년 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식 명인들과 발효 기술 등 발효식품 자원조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생태문화도시 순천 만들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허 시장은 "생태도시 순천이 자연과 인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존과 포용,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새로운 순천과 시민을 위해 나섰던 첫 마음을 항상 잊지 않 고자연과 사람, 도시가 고르게 성장하는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순천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누리는 차별없는 복지 순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책이라고 말한다.

허시장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무상으로 보내고, 인생 이모작 센터를 구축해 5060세대 신중년들이 인생재설계와 직업교육, 사회공헌활동 등 은퇴후 재취업과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

2019년도 주요 사업은

▲'순천 방문의 해' 추진과 '순천시청 신청사 건립' 주력
▲시민이 함께 잘사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 총력
▲농사짓는 사람이 더 만족하는 농정혁신 추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수도 완성
▲누구나 누리는 차별없는 복지 순천 실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먼저 여는 생태도시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문화건강센터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해 9월 개소할 계획이며 치매 시범마을도 운영한다.

허 시장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먼저 열어가는 도시가 한반도의 중심,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공존과 포용의 도시 순천이 그 문을 먼저 열어가겠다"며 평화 분위기 속 북한 순천 등과의 남북교류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끝으로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6개월간 새로운 순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올해는 새로운 순천을 실감하는 한해로 만들겠다"며 "2019년은 희망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신청사 건립안, 현청사 동측 부지 확장 확정

2024년 준공 목표 탄력

순천시 신청사 건립 계획안이 동측 부지 확장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최근 신년 언론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순천시 신청사 건립 부지 획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 청사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 청사 건립은 승주군과 순천시 통합에 맞물려 지난 199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왔지만 그동안 터를 정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가 이번 발표로 24년만에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적립함과 동시에 현 청사를 기준으로 동측, 남서측, 북측 3개 부지를 대상으로 확장부지로 선정 과정을 밟아왔다.

부지 선정을 위해 시는 2017년 7월부터 약 100회 이상의 설명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5300여명의 시민, 1400여명의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5299명 중 46%인 2377명이 동측 부지, 32%인 1676명이 남서측 부지, 21%인 1116명이 북측 부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등 16개 분야 72명의 전문가 그룹이 부지 현장 실사와 자료 검토한 결과 73%인 53명에 달하는 전문가들도 동측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늘의 역사적인 신청사 건립부지 발표는 28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미래 100년 시민의 집을 짓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의회 부끄러운 폭력사태 자성하라"

행의정모니터연대 촉구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가 최근 발생한 순천시의회 폭력사태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4일 올해 첫 의장단 회의를 서정진 의장을 비롯해 강형구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명, 의회 관계자 등 모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옆 자리에 있던 나안수 행정자치위원장이 일어나 욕설과 함께 서 의장에게 테이블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순천시의회에서 부끄러운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명분없는 폭력사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어이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순천시의회는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폭력사건이 일파만파 커져가자 나 의원은 7일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의원들께 죄송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세얼굴

"전직원 합심 1000만 관광객 달성할 것"

김병주 순천 부시장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순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김병주(54) 부시장은 "2019년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이 조선산업 만큼이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이라며 "올해 순천시 천만관광객 달성에 시 전직원들이 합심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더욱 좋아져 수도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찾는 순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출생인 김 부시장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방행정고시 2회를 거쳐 1997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 해양수산국장, 일자리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새해 '워라밸'하세요

- '워라밸'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
- 워라밸 문화의 중심, 생활문화센터
- '문화관광도시' 부산을 가다

신년기획-2019트렌드

2019 기해년
나만의 컨셉을 연출하고, 필환경의 감성으로 거듭나기

해외 문화 현장⑤
네덜란드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미술관

세계미디어아트시티를 가다①
예술교육과 일상에 빛 밝힌
독일 칼스루헤 ZKM

예향이 만난 이 사람
'2년차 기적' 이룬 광주FC 나상호
청룡영화상 수상 광주 영화감독 허지은

예향 초대석
요리와 연기의 고수
김수미
"내게 음식은 그리움, 요리는 행복"

문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⑮
통영 바다 닮은 유치환의 시
청마문학관

화제의 전시
외로운 생애, 따뜻한
그림으로 남은 화가 박은용

한국영화 100년, 남도 시네마 산책①
한 세기 남도의 영화 "레디 고"
1900년대 초 영화관부터
지역의 영화, 감독, 작품까지 조명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㊲
우리 시대 스타 메이커들
별들의 만드는 장인들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①
'책 읽는 서울' 이끄는
지식문화발전소
서울도서관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③
로버트 모제스 Vs.
제인 제이콥스

문화 화제
목포 김우진 골목에서 드라마보다 진했던
천재 극작가의 문학과 사랑 만나다

화제의 공연
80년의 뜨거움
2018 소리모아 무대